

생태문화이음길은?

생태문화이음길은 미추홀의 도시의 지형을 이어내는 길입니다.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 구분지어진 행정단위를 넘어서 도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산, 물, 길을 중심으로 확장하고 이어내어 걸어보고, 보다 큰 시선으로 지역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산, 물, 길은 필요에 의해 외형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지역의 큰 구조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 물, 길 등의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변화를 살펴보고 원형을 들여다보는 과정은 도시의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이해하는 과정이 됩니다. 또한, 현재의 도시 구조를 직시하는 과정은 도시를 보다 살기좋은 지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생태문화이음길 8개 코스를 안내자와 함께 걷다보면, 각 장소들이 어떤 지형 속에 구성되고 연결되어 있는지 만나게 됩니다. 또한, 공간마다에 묻어있는 다양한 시간 속 삶의 양식들을 들여다보게 되고, 나아가 지역 속에서 사람과 더불어 더 많은 존재들 동, 식물, 공간 등이 함께 공존함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8주 간의 과정 속에서 함께하는 이들이 함께 보는 것을 나누면서, 길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바다이음길2’

목적			
미추홀은 한반도에서 황해를 통해 세계로 나아가는 관문이었음. 한나루와 능허대는 기억 속에 또 공원으로 여전히 남아있음. 지금은 마천루가 솟은 송도신도시는 과거 먼우금이라 부르던 갯벌이었음. 송도북측수로 따라 걸으면서 접하는, 문학산과 청량산으로 이어지는 산 능선은 과거 바다에서 인천을 바라보던 느낌 그대로임. 황해를 향하고 또 바다에서 인천을 바라보던 과거를 생각하며 현재의 마천루와 수로에서 인천과 미추홀의 미래를 생각함.			
코스			
능허대공원 ▶ 아암대로 ▶ 아암도공원 ▶ 송도달빛축제공원 ▶ 송도북측수로 ▶ 외암도			
필요물품	따뜻한 음료와 간식, 편한 복장, 지도(핸드폰 대체)		
거리	약 8km	소요시간	약 3시간

1. 능허대공원





능허대는 백제시대 중국과 사신이 왕래하던 곳. 특히 도읍을 웅진(공주)로 옮기기 전까지 약 100여년 간 한반도의 관문으로 중요한 곳이었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각축으로 벌이면서 중국으로 향하던 육로가 막히면서 능허대에서 뱃길을 이용하여 산동반도의 등주와 내주 등으로 다녔음.

간척사업으로 주변이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도심 한가운데 자리잡게 됨. 현재 능허대공원에는 작은 정자와 연못이 있으며, 연못에는 인공폭포와 분수대가 있고 정자주변으로는 자연숲이 발달해있음. 인근에는 한나루(한진)가 있었는데 실제로 사신의 배를 탔던 곳은 한나루이고 능허대는 사신들이 송별하던 곳이라고도 함. 능허대는 바다쪽으로 돌출되었던 곳으로 배를 접안하거나 드나드는 배를 맞이하기엔 적합한 지형이었음. 송도가 매립되기 전까지 한진어촌계가 활동했음.

능허대지(凌虛臺址)는 현재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으로 1990년 11월 9일 인천광역시의 기념물 제8호로 지정되었음.

2. 아암대로



아암대로는 미추홀구의 능안삼거리부터 남동구 논현동(소래)까지 이어지는 길이 16.4km, 왕복 4차로에서 14차로에 이르는 도로임. 도로가 아암도를 지나면서 불리기 시작했는데 인천시민들에게는 '해안도로'라는 이름이 더욱 익숙함.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인천도시의 45%는 갯벌을 매립한 곳임. 일제강점기 중구와 동구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간척사업이 해방 후 경제개발시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됨. 아암대로는 송도신도시가 본격적으로 매립개발되기 전까지 인천 서남쪽의 해안선이었음. 아암대로가 만들어지면서 인천에서 본격적으로 갯벌매립이 진행되고 해안선이 단조로워지기 시작함.

3. 아암도공원



과거 송도해수욕장, 송도유원지에서 약 700m 떨어져 있던 무인도. 바다로 저만 치 있던 섬임. 약 1,800평으로 해안도로 건설과 함께 육지화됨. 바로 옆에 소아암도가 있었고 지금도 섬 주변으로 바위들이 있음.

아암도에는 소나무가 여러 그루 자라고 있음. 송도에서 북측수로를 따라 걷다가 육지쪽을 바라보면 과거 섬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음. 특히 과거 바닷쪽 바위들은 바다 바람과 파도에 풍화되어 작은 해식동물 등 다양한 형태의 해안선을 간직하고 있음.

주변에는 갯질경이, 갯잔디, 칠면초 등 염생식물들이 자라고, 갯벌에는 칠게 이외에도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2급이며 해양수산부지정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가 서식하고 있음.

4. 송도달빛축제공원



송도신도시의 대표적인 공원 중 하나로 북측수로 옆에 위치하고 있음. 인천시설공단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매년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이 열리는 야외공연장과 함께 농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을 갖춘 보조공연장이 있음. 또 반려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도그파크로 있음. 송도달빛축제공원으로부터 송도북측수를 따라 연결된 공원은 송도 등 연수구와 인천시민들이 즐겨 산책하는 공원임.

5. 송도북측수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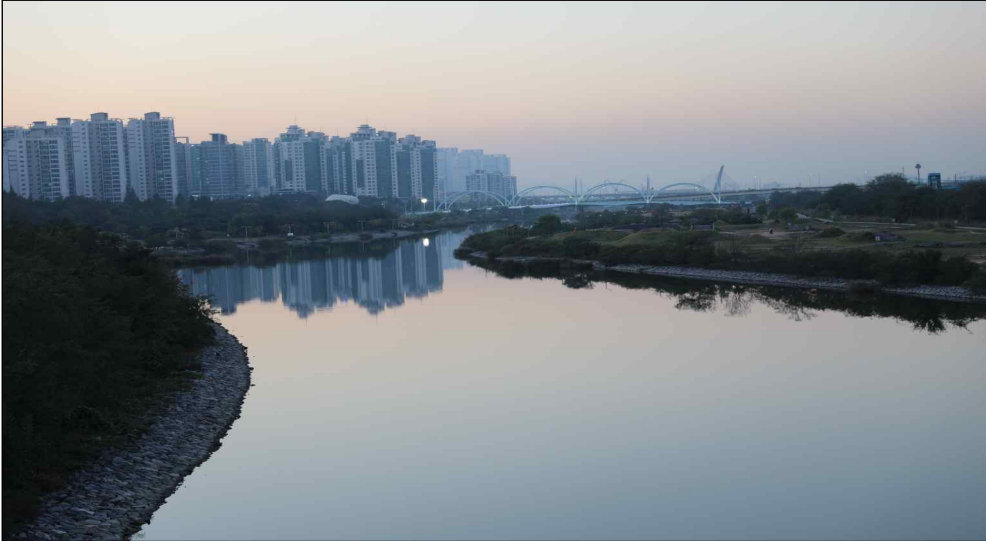


송도신도시를 만들면서 아암대로(해안도로)와 신도시 사이에 수로를 남겨놓음. 송도신도시를 계획할 당시 바다로 향하는 배모양으로 설계했다고도 하고 홍수조절을 위해 남겨둔 것이라고도 함.

송도달빛축제공원 쪽에는 카누 등 해양수상레저를 위한 체험과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해양도시 인천에서 바다를 알고 체험하기 위한 공간으로 중요함. 수로를 따라 남측으로는 산책로와 함께 다양한 공원이 구성되어 있고 북측으로는 파크골프장을 비롯해 산악자전거체험 구간도 있음.

송도위터프론트 조성을 앞두고 있음. 친수공간으로 중요한 곳임. 간혹 물고기 떼죽음을 당하기도 하는데 수질관리와 염분관리가 중요함.

6. 외암도



남동구 고잔동 산73번지. 외암도의 주소임. 해안선으로 따라 군초소들이 있었는데 외암도를 표적으로 사격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함. 외암도는 과거 송도북측 수로가 바다였던 증거임. 외암도가 남동구 소속임을 이유로 한때 남동구는 송도매립지(송도신도시)의 관할권이 남동구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음. 매립으로 인한 불완전한 생태계로 인한 2008년 등 외암도 주변 수로에서 청둥오리, 넓적부리 등 오리류가 보툴리즘에 의해 수천마리가 떼죽음을 당하기도 함.